

## 팀원 소개 - 로니 레주완



로니의 부모님은 1952년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알리야를 하셨고, 로니는 5년 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대체로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청년 때 저는 힌두교와 불교에 심취했고 마약도 좀 했습니다. 저는 뉴에이지 사상과 유대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는데, 특히 그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오직 하나 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비종교적 가정에서

자라기는 했어도 유대교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자 했으나, 실망했습니다.”

로니는 핀란드 출신으로 구습으로 돌아간 기독교인 애니와 결혼했는데, 본인이 예슈아를 믿게 되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리 추구에 집중하고 싶었고, 심지어 히말라야의 불교 승려가 되고자 했었습니다.

“제가 믿게 되기 전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 기도해줬는데 저는 마귀들이 제 몸에서 떠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물아홉 살에 믿게 되었습니다.”

로니는 더 이상 매일 6시간씩 하는 요가 명상을 하고 싶지 않았고, 애니도 곧

주께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20대의 딸 둘과 아들 한 명이 있고, 모두 믿습니다.

로니는 기독교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메시아닉 선교단체에도 들어가 이곳에서 16년을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마약중독과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시작하여, 지금은 재활센터 부소장이자 협력 공동체의 부목사로 있습니다 (아래 “베이트 하예슈아 – 협력 프로젝트” 참조).

---

## 에티오피아 사역 보고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인구가 있는 대륙 중 하나이지만, 리바이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아프리카 사역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 두 명이, 오랫동안 본인들의 출생지를 섬겨온 우리의 아주 친한 친구들인 에티오피아계 이스라엘인 사도적 지도자 비를리와 멜카메 벨라이와 함께 8일 동안 에티오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탐구했습니다.

이 여행은 작년 여름에 있었던 중요한 컨퍼런스에 기반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이 팀은 아디스아바바에서 큰 공동체와 몇몇 기업계 지도자들과, 가난해져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유대인 노인들과도 만났습니다. 이들 유대인 노인들은 이스라엘로 알리야하기 위해 땅을 팔고 가문의 집들을 남겨두고 떠나왔지만, 오랫동안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입국이 거절되어 아디스아바바에서 꿈쩍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팀은 네캄테라는 도시에 기적을 기반으로 하여 세워진 역동적인 큰 사역단체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새로 믿게 된 수백 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돕고 말씀을 가르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떠나오던 날, 에티오피아의 새 기독교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마치 이 팀이 그의 방문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도운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아디스아바바로 돌아올 가솔린이 없었는데, 마을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리터를 가지고 있던 한 남자를 통해 공급해 주셨는데요, 그는 우연히 대화를 듣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수단 국경에 있는 감벨라에서는 리바이브 이스라엘로부터의 가르침의 도움으로 회중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티쿤 아프리카(현재 저희 티쿤과는 연계가 없는) 회장인 죠아쉬와 동역관계를 맺고 이 멋진 성장을 후원하고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 네세르 아시아 사역 보고

새로 생긴 독수리(“네세르”) 프로젝트는 이스라엘의 젊은 신혼 지도자 세대가 열방의 상응하는 세대와 함께, 예슈아의 재림으로 다가갈수록 마지막 때의 어둠이 짙어져가는 때에 예슈아를 위해 영적 하늘을 지배하도록 준비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일단의 젊은이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대만과 한국에서 2주를 보내며 타문화를 경험하며, 사역할 기회를 통해 섬기며, 동아시아 동세대와 관계를 맺습니다. 지도자들 중 한 명은 “저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피어나 활기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베이트 하예슈아 - 협력 프로젝트

올렉(가명)은 구소련에서 KGB를 위해 일했었고, 20년 동안 중증 알콜 중독자로 많이 아팠고 정신질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이트 하예슈아 재활

아웃리치 센터와 회중을 통해 예슈아께 나아왔고 지금은 알코올중독에서 아주 많이 자유로워져 더 이상 약도 필요 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베이트 하예슈아(구원의 집)는 리바이브 이스라엘과 긴밀히 결연된 재활센터입니다. 센터 주민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탈피옷에서 예루살렘의 훨씬 더 나은 곳, 더 조용하고 정원도 있는 곳으로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센터 주민들은 거리로 나가 중독의 덫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달에 적어도 한 명은 믿음을 갖게 되어 지금 센터에 여덟 명이 있습니다. 중독을 끊고 집중적인 제자훈련을 위해 대체로 1년 동안 머무는데요, 매일 서너 개의 강의와 지도자들로부터의 멘토링이 있습니다.

자매 공동체는 80%가 중독에서 구원된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러시아어권 유대인인데, 그들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성들을 위한 집도 개원하고 싶어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 오늘날 우리의 도전 대 사도행전 (3부)

아세르 인트레이터가 오늘날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은혜 가운데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의 권세와 다양한 민족들의 갈등 가운데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할까요?

[여기를 클릭하세요!](#)